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alk swirls on backer for latest Samsung Heavy Industries LNG order

금요일(10일) 삼성중공업이 공시한 LNG운반선 선주가 Celcius Shipping, NYK Line으로 추측됨. 삼성중공업은 2020년초 ExxonMobil이 예약해둔 슬롯 관련 발주 논의 중으로 밝혀짐. (Tradewinds)

유조선시장 기준 운임 내년부터 9% 상승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유조선운임지수(WS)의 기준 운임이 2021년보다 +9% 높은 22.62달러/톤으로 결정됨. WS를 발표하는 영국 월드스케일협회는 2022년 저유황유(VLSFO) 가격이 2021년대비 +15% 상승한 473.95달러/톤일 것으로 전망함. (코리아쉬핑가제트)

'Volatile' market: MR rates double as product tankers outstrip crude ship earnings

MR탱커 운임이 최근 7일 사이 두배 이상 상승함. 전주 대비 +112% 상승하며 17,460달러를 기록함. 겨울철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성으로 해석함. (Tradewinds)

200 new car carriers needed to 2030 after years of underinvestment

Clarksons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자동차운반선 선대 증가율은 1% 미만일 것임. 노후선 교체 및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30년사이 100~200척 가량의 신조 자동차운반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함. 폐선량도 전년 23척에서 2021년 4척으로 감소함. (Tradewinds)

"항만 적체 골머리" 선사들, 유럽항로 4번에 1번꼴로 결항

컨테이너선사들이 지난 5개월간 유럽항로에서 389척의 선박운항을 취소함. 이는 항만 적체를 회피하거나 지연된 운항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적체가 심하지 않은 중소항만에서는 임시편이 77편 늘음. (코리아쉬핑가제트)

중국, 수요 급증에 11월 석탄 수입량 전년대비 3배 상승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수요급증에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난 3,505만t으로 확대됨. 중국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전력난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수입량이 급증함. 철광석 수입량은 +7%, 대두는 -11% 감소함. 중국의 수송수요가 벌크선 시황의 상승요인이 됨. (코리아쉬핑가제트)